

프랑스 노란 조끼 운동과 극단주의 정치 갈등: 의제 포섭과 양극화의 동학

김 현 정 (동아대학교)
(hjkim0111@gmail.com)



국문 요약

본 논문은 프랑스 노란 조끼 운동을 사례로 대표성 위기에서 비롯된 탈이념적 사회경제적 불만이 어떻게 극단주의 정치세력에 의해 의제 포섭되며, 정치 갈등 구조를 양극화시키는지를 분석하였다. 노란 조끼 운동은 애초 유류세 철회, 생활비 부담 완화, 공공서비스 접근성 보장 등 다양한 계층적 요구를 담은 운동이었다. 그러나 중앙집권적 조직과 단일 강령이 부재한 탈이념적 성격은 RN과 LFI 같은 극단주의 정치세력이 이를 선택적으로 재구성하기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였다. 국민연합(RN)은 이 운동을 국가 주권과 정체성 문제로 치환하며 내셔널리즘을 강화했고, 불복종의 프랑스(LFI)는 금융자본과 부유층에 맞선 계급투쟁으로 해석하였다. 그 결과 복잡한 생활세계적 불만은 단선화되어, 프랑스 정치 갈등 구조는 내셔널리즘과 급진적 계급주의라는 양극단의 적대 구도로 재편되었다. 이러한 의제 포섭 메커니즘은 단지 프랑스 정치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오늘날 경제적 불평등과 문화적 불안, 기후위기와 이주 문제 등이 결합된 구조적 위기를 겪는 다수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유사하게 관찰된다. 본 연구는 대표성 위기, 탈이념적 불만, 극단주의 담론 포섭이 결합된 정치 양극화 과정을 실증적으로 규명함으로써, 현대 민주주의가 직면한 구조적 취약성과 그 대응 과제를 탐색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주제어 : 프랑스, 노란 조끼 운동, 의제 포섭, 극단주의, 양극화, 대표성 위기, 포퓰리즘, 탈이념

I. 서론

프랑스의 노란 조끼(Gilets Jaunes) 운동은 2018년 말 유류세 인상에 대한 대중적 저항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세금 정책에 대한 불만을 넘어, 프랑스 사회가 오랫동안 축적해온 구조적 갈등과 정치적 불신을 폭발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도시와 농촌, 상류와 서민, 파리와 지방의 불평등은 이를 방치한 정치 엘리트에 대한 반감과 맞물려 유류세 인상을 임계점으로 하여 전국적 항쟁으로 확산되었다. 이 과정에서 노란 조끼 운동은 단일한 이념이나 정당을 내세우지 않고, 생활경제적 고통과 제도정치에 대한 실망이라는 탈이념적 분노를 공유한 채 수평적이고 분권적인 방식으로 전개되었다(Cautrès & Gougou 2019).

특히 주목할 점은 이 운동이 프랑스 지방 도시 외곽의 회전교차로(rond-point)에서 주민들이 노란 조끼를 입고 자발적으로 모이면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이다. 과거에는 상업과 교통의 중심이었으나 이제는 공동화되어 사람과 가게가 빠져나간 회전교차로는, 지방 소도시 주민들의 삶이 어떻게 변두리화되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공간이었다(Rouban 2019, 47). 대도시의 고소득층이 도심에 거주하며 대중교통을 통해 이동하는 동안, 소득 수준이 낮은 계층일수록 중심부에서 밀려나 외곽과 농촌에 거주하며 자동차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된 것이다(Ifop 2019). 이런 상황에서 마크롱(Emmanuel Macron)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을 명분으로 유류세를 인상하자, 이는 단순히 유류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사는 방식 자체를 위협하는’ 사회적 차별로 체감되었다(Mair 2013). 주민들은 자신들의 생활권과 맞닿아 있는 회전교차로에서 노란 조끼를 입고 모여 서 있거나 불을 피우며 항의했으며, 이러한 시위는 SNS를 통해 순식간에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Perrineau 2019). 불과 한 달 만에 약 800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시위가 벌어졌고, 이는 기존의 정당 정치나 노조가 조직한 대규모 집회와는 전혀 다른, 생활 기반에서 솟구친 수평적 저항으로 변저나갔다(Mudde & Kaltwasser 2017, 85). 주체 없는 분노는 한편으로 강력한 연대를 낳았지만, 동시에 운동을 공식적으로 대표하거나 통일된 목소리로 내세울 수 있는 조직적 구심점을 갖지 못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운동의 자발성과 비정당성은 역설적으로 정치적 취약성을 낳았다. 공식 지도부나 통일된 담론 구조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노란 조끼 운동은 곧 프랑스 정치의 극단주의 세력에게 의제를 포섭(issue appropriation) 당하고 재해석되는 양상을 보였다(Rouban 2019, 47). 극우를 대표하는 마린 르펜(Marine Le Pen)의 국민연합(RN: Rassemblement National)¹⁾은 노란 조끼 운동을 국가정체성과 반이민, EU 회의론으로 연결지으며, 내셔널 리즘적 담론을 강화하였다(Perrineau 2019). 반면 급진좌파인 장 뤽 멜랑송(Jean-Luc

Mélenchon)의 ‘불복종의 프랑스(LFI: La France Insoumise)’는 이를 부유세와 재분배를 통한 사회정의 실현, 금융자본에 맞선 계급투쟁으로 해석했다(Mudde & Kaltwasser 2017, 85). 언론은 노란 조끼 시위의 폭력적 장면을 집중 조명하면서 운동 전체를 과격주의 혹은 극단주의로 프레임하였다(Le Monde 2018). 결국 노란 조끼 운동은 본래의 다층적이고 탈이념적 성격을 상실하고 프랑스 정치의 양극단 담론에 편입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단지 프랑스의 특수 사례에 그치지 않는다. 전통 정당체계가 약화되고 대표성의 위기가 심화되는 현대 유럽정치에서, 자발적 대중운동이 극단주의 세력에게 의제와 명분을 포섭당하는 것은 구조적 위험으로 지적된다(Mair 2013). 노란 조끼 운동은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생활세계에서 출발한 분노와 사회경제적 불만이 극단주의 정치세력에 의해 정치적 갈등으로 재구성되고, 이를 통해 의회와 공론장에서 양극화가 고착되는 과정은 프랑스뿐 아니라 여러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목격된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프랑스 노란 조끼 운동을 중심으로 극단주의 정치세력이 어떻게 의제를 포섭하고 정치 갈등을 재구조화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극단주의와 포퓰리즘, 의제 포섭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검토하고, 이어 노란 조끼 운동의 성격과 전개 과정을 고찰하였다. 나아가 극우 RN과 급진좌파 LFI가 운동의 의제를 각기 어떤 방식으로 재해석하며 자신들의 정치적 담론에 편입시켰는지를 분석하고, 그 결과 프랑스 정치 지형이 어떻게 양극화되었는지를 규명한다. 결론에서는 이러한 프랑스 사례가 현대 민주주의에서 대표성 위기와 극단주의 정치가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대해 어떠한 시사점을 주는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논의: 극단주의와 의제 포섭

1. 극단주의 정치에 관한 고찰

현대 유럽에서 극단주의 정치는 전통적으로 ‘극우(radical right)’와 ‘급진좌파(radical left)’로 구분되어 논의되어 왔다. 극우는 대체로 민족적 동질성과 국가주권의 보전을 강조하며, 이민과 다문화주의를 체계적으로 거부하는 내셔널리즘과 결합하는 경우가

1) 프랑스 극우 정당인 국민연합은 1972년 창당 이래로 오랫동안 Front National(FN)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다가, 2018년 르펜의 주도 아래 당 이미지를 부드럽게 하고 과거의 극단적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Rassemblement National(RN)로 당명을 변경하였다. 이는 르펜이 추진한 ‘탈과격화 전략(dédiabolisation)’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많다. 프랑스의 경우 르펜이 이끄는 국민연합(RN)은 대표적인 극우정당으로, 경제적 불평등보다는 국가정체성,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에 대한 회의, 그리고 반이민 기조를 중심에 두고 대중을 동원한다(Mudde & Kaltwasser 2017, 20; Perrineau 2019). 독일의 ‘독일을 위한 대안’(AfD: Alternative für Deutschland)이나 네덜란드의 자유당(PVV) 역시 유사하게 이민 문제를 주된 공격 지점으로 삼으며, 브뤼셀의 관료제와 다문화주의 정책을 ‘국가 파괴의 주범’으로 지목한다. 이들은 EU가 추진해 온 경제·사회 규범 통합을 ‘국가 주권 침해’로 간주하며, 각국의 전통적 가치와 경제주권을 방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비해 급진좌파는 시장경제의 구조적 불평등과 자본주의적 축적 논리를 비판하고, 부유세나 대규모 재분배를 통한 사회적 평등 실현을 중시한다. 프랑스에서는 멜랑송이 이끄는 불복종의 프랑스(LFI), 그리스의 시리자(SYRIZA, 급진좌파연합의 약칭), 스페인의 포데모스(Podemos,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의미)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글로벌 금융자본에 대한 체제적 비판과 함께, 긴축정책을 추진하는 EU에 대한 반발을 주요한 동원 자원으로 활용하였다. 급진좌파는 극우와 달리 다문화주의와 이민자 권리 보호를 지지하는 경향이 있으나, 유럽 통합에 대해서는 ‘사회적 유럽(social Europe)’의 실현 없이 진행된 통합을 불평등의 원인으로 비판해 왔다(Rouban 2019, 53). 흥미로운 점은 급진좌파가 EU를 무조건 지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시리자처럼 긴축정책에 저항하며 EU를 ‘긴축의 기구’로 규정하는 경우도 있고, LFI 또한 브뤼셀의 규제 프레임워크가 사회복지 국가를 약화시킨다고 비판한다. 따라서 유럽통합은 극우에게는 ‘국가 정체성을 훼손하는 외부 권력’으로, 급진좌파에게는 ‘국민 복지를 제한하는 신자유주의적 질서’로 각각 공격받으며, 상반되지만 동시에 반EU(유럽회의주의) 담론의 장을 제공해 왔다(Mair 2013; Perrineau 2019).

특히 주목할 점은 2000년대 이후 유럽연합의 확장과 심화 과정에서 극우와 급진좌파 모두 유럽회의주의를 전략적으로 활용했다는 사실이다. 극우는 EU를 이민 유입의 통로이자 국가주권 침해의 주범으로 규정하며 정체성 정치(identity politics)를 강화하는 데 사용했다. 반면 급진좌파는 EU의 긴축 재정 강요와 시장 자유화 중심 통합에 반발하며 ‘민주적 탈퇴’ 또는 ‘좌파적 재통합’ 구호를 내세웠다(Mudde & Kaltwasser 2017, 84). 이처럼 양 극단은 유럽 통합에 대해 서로 다른 관점에서 비판하면서도, 공통적으로 기존 엘리트 체계와 브뤼셀 중심 권력 구조에 대한 불신을 바탕으로 성장해 왔다.

결국 극우와 급진좌파 모두 정치적 대표성 위기에 기초해 대중적 정당성을 획득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유사성을 가진다. 이들은 ‘부패한 엘리트 대 순수한 국민(the pure people vs. the corrupt elite)’이라는 이분법적 구도를 통해 기존 정치권을 비난하고 자신의

정당을 유일한 대변자라 주장해 왔다(Mudde & Kaltwasser 2017, 26). 복잡한 사회경제적 문제들은 이러한 프레임 안에서 감정적 분노와 적대 구도로 단순화되고, 결과적으로 공론장에서의 타협 가능성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한다(Mair 2013).

〈표 1〉 유럽 주요 극우와 급진좌파 정당 비교

구분	극우 정당 (radical right)	급진좌파 정당 (radical left)
주요 사례	프랑스 RN(Marine Le Pen), 독일 AfD, 이탈리아 Lega	프랑스 LFI(Jean-Luc Mélenchon), 그리스 SYRIZA, 스페인 Podemos
주요 정당 이슈	국가정체성, 반이민, 반EU, 주권 회복	사회적 불평등, 부유세, 긴축 반대, 친이민
유럽 통합에 대한 태도	강경 유럽회의주의(EU 탈퇴, 해체 주장 포함)	EU 구조 비판, 긴축 거부, '사회적 유럽' 요구
대표적 슬로건	"프랑스를 되찾자", "국경과 국민 보호"	"사람을 위한 유럽, 시장이 아닌 사람을 위한 정책"
담론 전략	엘리트 vs 국민(민족), 정체성 정치	엘리트 vs 국민(계급),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소

출처: 저자 작성

극우와 급진좌파 모두 정치적 대표성의 위기에 기초해 대중적 정당성을 획득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프랑스 정치에서 대표성의 위기는 단지 제도적 정당 체계의 약화에 그치지 않고, 대의제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 붕괴를 포함하는 다층적 현상으로 나타난다. Pierre Rosanvallon(2020)은 이를 '기능적 대표성의 위기', '상징적 대표성의 위기', '표현의 위기'로 구분한다. 즉, 정당과 의회가 국민의 이해를 실질적으로 대변하지 못하고, 엘리트 중심 구조가 심화되며, 정치 참여의 채널 자체가 시민들에게 닫혀 있는 상태가 복합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적 위기는 단순히 특정 정당에 대한 실망이 아니라, 정치 그 자체에 대한 제도적 회의로 이어지며, 시민들을 거리와 광장으로 내모는 결정적 배경이 된다. Mair(2013) 또한 '정치의 공허화(Ruling the Void)'라는 개념을 통해, 유럽 전반에서 정당이 시민사회와 국가를 연결하는 매개체로서 기능을 상실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이는 프랑스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노란 조끼 운동은 전통적 정당과 노조 모두에 대한 신뢰 붕괴 속에서 자발적, 탈제도적 저항의 형태로 나타났다.

Mudde and Kaltwasser(2017, 26)가 지적하듯, 극단주의 정치세력은 엘리트 대 시민이라는 이분법적 대립 구도를 통해 기존 정치권을 비난하고, 자신을 유일하게 진정한 국민의

대변자로 자리매김한다. 이 과정에서 대중적 불만과 분노는 간결한 적대구도로 단순화되어, 복잡한 사회경제적 문제들을 정서적 공감과 결집으로 환원시켜 왔다(Mair 2013). 이처럼 극단주의 정치는 정치적 엘리트에 대한 불신, 기존 정당체계의 무력감,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불만을 결합해 대중의 광범위한 지지를 얻는다. 그러나 그 해법은 주로 정치·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방식으로 제시되며, 결과적으로 공론장과 의회에서의 타협 가능성을 축소시키고 갈등의 격화를 초래하는 경향이 있다(Cautrès & Gougou 2019). 이처럼 극단주의 정치는 유럽 전반에서 정당체계의 변화, 경제 불평등, 유럽 통합의 정당성 위기라는 구조적 문제와 맞물려 등장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프랑스의 노란 조끼 운동과 극단주의 정당들(RN, LFI)의 대응을 통해 이들의 전략적 담론 형성과 갈등 유발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2. 의제 포섭 개념과 사회운동 내 적용

의제 포섭(cooptation, 프랑스어로 *récupération*)은 본래 조직사회학과 정치사회학에서 발전해 온 개념으로, 원래 특정 집단이나 운동이 제기한 문제의식과 요구가 외부의 강력한 행위자—주로 국가, 정당, 언론, 기업—에 의해 흡수되거나 재구성되는 과정을 가리킨다. 포섭은 단순히 의제의 차용을 넘어, 운동 본래의 맥락과 의미를 변형시켜 기존 체제나 다른 세력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것을 의미한다(Mair 2013).

이 개념은 사회운동론에서도 중요한 분석 도구로 활용된다. Tarrow(1998)는 사회운동이 성장하고 대중적 지지를 얻는 과정에서 제도권 세력이나 정당이 운동의 주요 구호를 자신들의 정책 플랫폼에 통합하는 현상을 지적하며, 이를 통해 운동의 급진성이 약화되거나 의제가 완전히 변질될 수 있다고 보았다. 프랑스 정치 담론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흔히 ‘정치적 가로채기(*récupération politique*)’라고 부르며, 정치세력이 대중적 불만을 자기 담론 체계 안에 흡수해 활용하는 전략으로 해석했다(Rouban 2019, 88). 포퓰리즘 연구에서 의제 포섭은 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Mudde and Kaltwasser(2017, 47)는 포퓰리즘 정당이 엘리트-국민이라는 단순화된 구도를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적 불만과 요구를 전략적으로 선택해 자신의 정치적 의제로 삼는 과정을 ‘포퓰리스트적 재프레이밍(*populist reframing*)’이라고 설명한다. 이는 단지 불만을 수용하는 차원이 아니라, 불만의 구조를 재정의하고 그 원인을 특정 방식으로 지목하여 운동이나 대중이 갖고 있던 복합적 문제의식을 보다 극단적이고 선명한 적대구도로 전환시키는 작업이다.

유럽에서는 이러한 의제 포섭이 사회운동이나 경제적 불만을 극단적 갈등 구도로 재편하

면서 공론장을 위축시키는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 독일에서는 AfD가 동독 지역의 탈산업화와 이로 인한 실업·소득불안을 “이민자와 브뤼셀의 탓”으로 돌리며 극우적 유럽회의주의를 확산시켰다(Arzheimer 2015). 그리스에서는 2010년대 긴축정책 반대 시위가 급진좌파 시리자(SYRIZA)에 의해 제도권 의제로 흡수되었으나, 집권 이후 사회적 기대를 완전히 충족시키지 못하면서 이후 더 과격한 극우 황금새벽당(Golden Dawn)이 일정 부분 정치공간을 얻는 결과를 낳았다(Halikiopoulou 2015). 스페인에서는 Podemos가 광장시위(Indignados 운동)의 좌파 의제를 흡수했지만, EU 규칙과 다층정부 조정 속에서 급진적 변화를 충분히 이루지 못해 다시 정치적 불신이 고조되었다(Rodríguez-Teruel et al. 2016).

이러한 의제 포섭은 노란 조끼 운동과 같은 자발적·탈이념적 대중운동에서 더욱 빈번하게 나타난다. 노란 조끼 운동은 초기부터 유류세 인상, 생활비 부담, 정치 엘리트에 대한 불신 등 다양한 의제를 분출했으나, 중앙조직이나 공식 대표가 없는 상태에서 극우 RN과 급진좌파 LFI에 의해 각기 다른 방식으로 재해석되었다(Perrineau 2019). RN은 이를 “프랑스인의 생존을 위협하는 글로벌리즘과 EU 관료주의에 맞선 투쟁”으로, LFI는 “부유층과 금융권력에 의해 파괴된 사회적 연대를 회복하기 위한 계급투쟁”으로 위치시켰다. 이처럼 의제 포섭은 대중운동의 자율성을 약화시키고, 결국 운동을 극단주의적 담론과 정치 갈등의 구조로 편입시키는 기제로 작동한다(Cautrès & Gougou 2019).

물론 의제 포섭에는 일정한 긍정적 측면도 존재한다. 대중적 분노와 사회적 요구가 전혀 제도정치에 포섭되지 못할 경우, 급진적 급류가 체제 밖에서 폭발하거나 무정부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일정 정도의 의제 포섭은 분노를 제도권 안으로 통합하고 제도정치가 이를 논의의 장으로 끌어들이는 점에서 사회적 안정장치로 기능하기도 한다(Tarrow 1998). 그러나 본 연구가 특히 주목하는 것은 이러한 의제 포섭이 대개 운동의 복합적 문제의식을 단순화하거나 극단화된 적대구도로 재해석함으로써 오히려 정치적 양극화와 사회적 불신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결국 의제 포섭은 단기적으로는 갈등을 관리하는 효과가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더 큰 정치적 냉소와 분열을 낳는 양면성을 지닌다(Mudde & Kaltwasser 2017; Cautrès & Gougou 2019).

본 논문은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최근 유럽에서 대표성 위기와 사회경제적 불만이 탈이념적 형태로 폭발하고, 이를 극단주의 정치세력이 의제 포섭하는 경향이 구조화되고 있음을 하나의 분석틀로 제시한다. 이 분석틀은 (1) 대의제의 위기와 생활세계 기반의 탈이념적 분노가 확산되고, (2) 극단주의 세력이 이를 전략적으로 재구성해 자신의 정치 담론에 흡수하며, (3) 결과적으로 정치 갈등과 사회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상호작용 과정을 규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후 장에서는 이러한 분석틀을 프랑스 노란 조끼

운동에 구체적으로 적용해, 대표성 위기와 의제 포섭이 어떻게 결합되어 사회 갈등을 재구성하는지를 실증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Ⅲ. 프랑스 노란 조끼 운동의 전개와 성격

1. 운동의 발단과 주요 의제

노란 조끼 운동은 2018년 11월 중순, SNS를 통해 전국에서 거의 동시에 점화되었다. 이미 서론에서 살펴본 대로 유류세 인상이 결정적 방아쇠가 되었으나, 실제 운동은 단발적 저항에 그치지 않고 지방 소도시와 농촌 외곽의 회전교차로들을 점거하는 방식으로 빠르게 확산되었다. 처음 몇 주간은 주유소 인근 교차로에서 차량을 늦추거나 멈추게 하고 전단을 돌리며 상징적으로 시위를 벌이는 모습이 주를 이뤘다(Cautrès & Gougou 2019). 이러한 방식은 지방 거주민들에게 크게 호응을 얻어, 파리 등 대도시를 벗어난 곳에서 더욱 강력하게 퍼져나갔다.

운동에 참여한 계층도 독특했다. 전통적인 노조 조직이나 좌·우 정당 지지 기반과 달리, 자영업자, 소규모 상인, 중소기업 노동자, 실업자 등 직업적 배경이 다양했고, 공통적으로 생활비 부담과 세금 불만을 공유하는 이들이 중심을 이루었다(Ifop 2019). 초기에는 ‘유류세 인상 철회’라는 구체적 구호로 시작했지만, 시위 현장에서는 곧 ‘사회적 정의를 위한 부유세 재도입’, ‘최저임금 인상’, ‘퇴직연령 인상 반대’, ‘정치인 특권 폐지’와 같은 다양한 경제·사회 요구가 쏟아졌다(Perrineau 2019). 마크롱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 방식에 대한 반감은 “국민이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국민투표(RIC)” 같은 직접민주주의 요구로까지 이어졌다.

운동은 시간이 지나며 전국적인 ‘토요일 집회’(Actes)로 정례화되었고, 파리 샹젤리제에서의 시위가 상징적 장면으로 자리 잡았다. 다만 이 과정에서 소규모 폭력 사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언론은 운동 전체를 과격주의로 묘사하기 시작했고(Le Monde 2018), 이는 운동 내부에서도 “폭력 이미지로 인해 우리의 경제적·민주적 요구가 왜곡된다”는 우려를 불러왔다. 요컨대 노란 조끼 운동은 유류세라는 계기로 촉발되었지만, 이후 프랑스 사회가 안고 있던 광범위한 불만을 동시다발적으로 분출하는 장으로 기능하면서, 단일한 강령 없이 복잡한 요구들을 품게 되는 다층적 성격을 띠게 되었다.

〈표 2〉 노란 조끼 운동의 시기별 변천과 참여자 여론

시기	주요 특징	참여자·여론(ifop, 2019)	세부 여론 항목
2018년 11~12월	연료세 인상 철회 요구 중심, 전국 회전교차로 점거 및 주유소 시위 확산. SNS로 빠르게 조직화	전국 국민의 72%가 시위에 공감, 주로 지방 거주 중하층	연료세 철회에만 찬성: 65%, 부유세 재도입까지 찬성: 48%
2019년 1~3월	부유세 재도입, 최저임금 인상, RIC(국민발안투표) 등으로 의제 다층화. 파리 상젤리제 대규모 시위, 일부 폭력사태	시위 공감도 54%로 감소, 여전히 과반이 사회경제 불만에 동의	부유세 재도입 찬성: 61%, RIC(직접민주주의) 찬성: 58%

출처: Ifop (2018). “Balises d’opinion #50 – Les Français et le mouvement des Gilets jaunes.” Ifop Reports. <https://www.ifop.com/wp-content/uploads/2018/12/115209- Rapport-CN-SR-50.pdf> (accessed July 10, 2025).

Ifop (2019). “Balises d’opinion #80 – Les Français et le mouvement des Gilets jaunes.” Ifop Reports, November. <https://www.ifop.com/wp-content/uploads/2019/11/116084-Rapport-CN-SR-N80.pdf> (accessed July 10, 2025).

〈표 2〉에서 보듯 노란 조끼 운동은 초기에는 유류세 철회라는 단일한 요구가 압도적으로 부각되었고, 실제로 국민의 약 65%가 유류세 문제에만 동의했다. 그러나 불과 몇 달 사이에 부유세 재도입, 최저임금 인상, 직접민주주의 제도(RIC) 도입과 같은 보다 구조적인 사회경제 개혁 요구가 본격적으로 제기되었고, 부유세 재도입에 찬성하는 비율도 61%로 증가했다(ifop 2019). 이는 운동이 단순한 세금저항을 넘어 프랑스 사회의 심층적 불평등 문제를 공론장으로 끌어올린 계기였음을 시사한다. 다만 같은 시기 운동 전체에 대한 공감도는 72%에서 54%로 낮아졌는데, 이는 시위가 과격화되면서 언론 보도가 폭력 사태를 부각시킨 영향이 크다. 결국 노란 조끼 운동은 짧은 시간 안에 요구의 스펙트럼이 급속히 넓어지는 동안 내부의 상충과 혼란이 발생했고, 이러한 다층적 의제가 이후 정치세력에 의해 선택적으로 포섭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하게 되었다.

2. 조직 구조의 부재와 다양한 내부 정체성

노란 조끼 운동은 출발 단계부터 중앙조직과 공식 지도부가 전혀 없는 상태로 진행되었다. 이는 전통적으로 강력한 전국 노조나 정당 구조가 주도했던 프랑스의 사회적 동원 방식과 극명히 대비된다. 노란 조끼 운동의 조직적 특성은 SNS를 통한 빠른 동원, 지역 단위의

자발적 집회, 그리고 참가자 개개인의 직접 발언을 가능케 했지만(Cautrès & Gougou 2019), 동시에 운동 내부에 다양한 정체성과 상이한 이해관계를 한꺼번에 끌어들이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조직적 부재로 인해, 초기에는 노란 조끼 운동이 매우 개방적이고 유연한 성향을 갖게 되었다. 지역별로 자발적으로 형성된 집회와 토론회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자유롭게 나오며, 참가자들은 자신의 구체적 불만과 요구를 직접 발언할 수 있었다. 유류세 문제로 시작했으나 곧 부유세 재도입, 최저임금 인상, 퇴직연령 상향 반대, RIC(국민발안투표) 같은 제도 개혁 요구까지 확장된 것도 이런 수평적 구조 덕분이었다(Perrineau 2019).

〈표 3〉 노란 조끼 운동 참여자의 좌우 성향 및 직업별 분포

구분	비율
과거 좌파 투표층 (사회당·공산당·LFI 등)	약 40%
과거 우파 투표층 (공화당·RN 등)	약 30%
노조 가입 경험자	약 20%
자영업·소상공·중소기업 종사자	약 35%
노동자·임시직·실업자	약 45%
공무원·서비스·기타	약 20%

출처: Ifop (2019). “Balises d’opinion #80 – Les Français et le mouvement des Gilets jaunes.” Ifop Reports, November. <https://www.ifop.com/wp-content/uploads/2019/11/116084-Rapport- CN-SR-N80.pdf> (accessed July 10, 2025).

〈표 3〉에서 볼 수 있듯, 노란 조끼 운동 참여자들은 과거 좌파를 지지한 층과 우파를 지지한 층이 함께 결합해 있었다. 좌파 성향의 참여자들은 주로 부유세 재도입과 최저임금 인상 같은 재분배 정책을 강하게 요구했고, 우파 성향의 참여자들은 국가 규제 완화와 세금 부담 경감을 주요 주장으로 내세웠다. 이러한 상이한 요구들은 동일한 집회 현장에서 동시에 표출되며 운동의 폭넓은 확산을 가능하게 했지만, 통일된 강령을 만들지 못하게 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하였다. 노란 조끼 시위 참가자들은 전통적인 좌우 성향, 직업별 구분에 따라 매우 이질적 구성을 띠고 있었다. 약 40% 정도가 과거 좌파 정당에 투표하거나 노조 활동과 연관된 전통적 노동계층·실업층이었으나, 동시에 약 30%는 과거 우파를 지지해온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 종사자였다(Ifop 2019). 또한 농민, 운송업자, 공무원 등도 고루 분포해 있어 단일 계급 혹은 정치 이념으로 쉽게 정의할 수 없는 운동임이 드러난다.

이러한 구성을 볼 때 노란 조끼 운동은 기존 프랑스 정치에서 흔히 구분되던 계급별·이념별 동원 패턴을 벗어나 있었다. 참여자들은 한편으로는 부유세 재도입, 최저임금 인상 등 재분배를 지향하는 좌파적 의제를 강하게 지지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의 과도한 규제를 비판하고 세금 부담을 줄이자는 우파적 주장도 동일 집회 내에서 공존했다. 이는 중앙조직이 부재하고 통일된 강령이나 공식 대표가 없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Perrineau 2019).

그러나 이러한 수평적 개방성과 다층성은 동시에 운동의 취약성으로 작용했다. 참가자들의 이질적 요구와 정체성은 종종 서로 충돌했고, 구체적 정책 목표나 협상 창구를 만들지 못하게 했다. 언론은 파리 샹젤리제에서 벌어진 소수 폭력사태를 집중 보도하면서 운동 전체를 과격주의로 몰아갔으며(Le Monde 2018), 극우 RN과 급진좌파 LFI는 각각 자신들의 정치 담론으로 운동을 해석하고 의제를 포섭하려 했다(Rouban 2019). 결국 노란 조끼 운동은 중앙 지도부의 부재로 인해 폭넓은 사회경제적 불만을 담아낼 수 있었지만, 역설적으로 그 다양성과 구조적 무질서가 운동을 외부 정치세력에 의해 쉽게 재편되는 상태로 두게 된 것이다.

3. 극단주의와 의제 포섭의 상호작용

노란 조끼 운동은 단일 이념이나 계급적 정체성으로 정의되지 않는, 탈이념적 대중운동의 전형을 보여주었다. Mariot and Zalc(2010)는 이를 “사적인 생활세계에서 직접 분출된 정치화되지 않은 불만이 공적 장으로 넘어온 예외적 사건”으로 분석한다. 실제로 노란 조끼 운동 참여자들은 기존 정당 체계나 이념 구분을 거치지 않고, 연료세 인상과 생활비 부담 같은 구체적 경제 문제에 대한 즉각적 반응으로 결집했다.

이러한 탈이념성은 한편으로 기존 정당이 수렴하지 못한 불만을 폭넓게 담아내면서 운동의 급속한 확산을 가능하게 했다. 그러나 Pierre Rosanvallon(2020)이 지적하듯, 대표성 위기가 심화된 사회에서 대의제에 대한 불신은 종종 구체적 해결 방안을 찾는 대신 “적대와 불만 자체를 공동체 정체성으로 삼는” 경향으로 이어지기 쉽다. 노란 조끼 운동에서 나타난 극단적 엘리트 혐오와 브뤼셀(유럽연합)에 대한 감정적 반감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이러한 운동은 Daniel Gaxie(1978)가 말한 ‘비정치화(dispoliticisation)’의 역설을 드러낸다. 즉 정치 불신으로 인해 기존 이념과 제도권 정치에 거리를 두는 것은 오히려 정교한 정책 논의보다는 감정적 동원에 의존하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정치적 갈등 구조를 더 불안정하게 한다. 노란 조끼 운동은 부유세 재도입과 규제 완화, 직접민주주의(RIC)

같은 상이한 요구들이 동시에 존재하며, 통일된 강령이나 조직이 부재한 상태에서 유지되었다. 일시적으로는 폭넓은 연대가 가능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다른 요구들이 충돌하고 운동의 동력이 약화되었다.

결국 이러한 탈이념적 분노는 프랑스 사회가 오랫동안 축적해 온 불평등과 대표성 위기의 결과물이었으나, 구체적 해결 방안으로 수렴되기보다는 감정적 적대와 단기적 결속으로 표출되면서 극단주의 정치세력이 이를 각자의 방식으로 재해석하고 흡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이는 노란 조끼 운동이 보여준 가장 두드러진 양면성이자, 현재 유럽 여러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구조적 문제의 단면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이러한 탈이념적 분노는 구체적 정책 대안이나 정교한 조직화를 결여한 채, 엘리트와 정치 체제에 대한 광범위한 불신을 중심으로 유지되었다. 시위 현장에서는 마크롱 정부, 유럽연합, 글로벌 경제를 하나로 묶어 비난하는 구호가 반복적으로 등장했고, 이는 단순화된 적대 구도를 통해 운동을 유지시키는 정서적 동력이 되었다.

이러한 조건은 극단주의 정치세력에게 의제를 전략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프랑스 극우 RN은 이를 “프랑스인의 생존을 위협하는 브뤼셀 관료주의와 글로벌리즘에 맞선 투쟁”으로 해석하며 국가 주권과 반이민 기조를 강화했고, 급진좌파 LFI는 “부유층과 금융권력에 의해 파괴된 사회적 연대를 회복하기 위한 계급투쟁”으로 위치시키며 대규모 재분배와 금융규제를 부각시켰다(Perrineau 2019). 이러한 의제 포섭 과정에서 본래 노란 조끼 운동이 내포하고 있던 복합적이고 다양한 생활경제적 불만은 각기 다른 극단주의 담론 속에서 재해석되었다. Mudde & Kaltwasser(2017, 47)가 지적하듯, 포퓰리즘은 대중적 불만을 “엘리트 대 국민”이라는 단순 구도로 재프레이밍해 정치 갈등을 극대화하는 경향이 있다. 노란 조끼 운동의 의제 역시 극우와 급진좌파 담론 속에서 단선화되며, 그 과정에서 정치적 중도는 설 자리를 잃었다. 이로 인해 프랑스 사회의 갈등 구조가 한층 더 양극화되고, 장기적으로는 더 큰 대표성 위기와 제도정치에 대한 불신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커졌다. 이러한 문제는 이후 장에서 RN과 LFI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 운동을 담론화하고 정치 갈등 구조를 재편했는지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4. 운동 내부의 목소리와 정치세력에 대한 반응

노란 조끼 운동은 탈이념적 생활경제적 불만을 기반으로 자발적으로 확산된 운동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극단주의 정치세력에 의해 선택적으로 의제가 포섭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재해석 시도에 대해 운동 내부 참여자들은 일관되게 거부와 경계의 태도를 보였으며, 자신들의 정체성과 요구가 특정 정당의 프레임에 갇히는 것을 거부했다.

운동 초기에 여러 참여자들은 자신들을 “좌파도, 우파도 아닌 시민(citoyens)”으로 규정했다. 한 참가자는 인터뷰에서 “우리는 활동가가 아니라 시민이다. 이견 삶의 문제다”라고 말하며, 정당 정치에 대한 대표되지 못한 경험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로비가 아니라, 국민의 로비다(We’re not activists, we’re citizens… We’re the lobby of the people)”라고 말했다(The New Yorker 2018). 또 다른 참가자는 “정치가 우리를 대표하지 않는다. 그래서 거리를 택했다”는 발언을 통해 제도정치에 대한 극심한 불신을 드러냈다(Reungoat 2022).

이러한 인식은 정치세력의 의제 포섭 시도에 대한 뚜렷한 반발로 이어졌다. RN(국민연합)이 운동을 ‘프랑스인의 생존을 위협하는 EU와 이민의 결과’로 규정하며 정치적 지지를 표명하자, 일부 참여자들은 “르펜이 우리를 이용하고 있다. 우리는 이민자 때문에 분노하는 게 아니다. 우리 문제는 생계다”라고 즉각적으로 반박했다(France Culture 2019). LFI가 운동을 계급투쟁의 연장선으로 재해석하자, 자영업자나 운송업 종사자들로부터는 “나는 노동계급이 아니다. 그저 매달 버티는 사람일 뿐이다”라는 회의적인 반응이 뒤따랐다(Communemag 2019).

또한 운동이 언론에 의해 폭력적으로 프레임되는 데 대한 비판도 잇따랐다. 한 여성 참여자는 RMC 라디오 방송에서 “나는 블랙 블록이 아니다. 나는 노란 조끼다. 하지만 언론은 우리를 다 똑같이 본다”고 말하며, 폭력적 이미지가 운동 전체를 왜곡시키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Communemag 2019).

이러한 발언들은 노란 조끼 운동이 단지 제도권 담론에 의해 재해석되고 흡수된 수동적 객체가 아니라, 내부에서 자기 정체성과 의제를 지키려는 주체적 시도가 병존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다만 대표자 부재와 조직력의 부족으로 인해 이와 같은 목소리는 제도정치와 공론장에서 실질적 영향력을 확보하기 어려웠고, 결과적으로 극단주의 담론의 재해석에 구조적으로 노출되는 결과를 낳았다. 그럼에도 이러한 내부 반응은 노란 조끼 운동을 단순히 극우 또는 급진좌파 담론에 포섭된 사례로 환원하는 것을 경계하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갖는다.

IV. 극단주의 정치세력에 의한 의제 포섭과 정치 갈등의 양극화

1. RN(르펜)의 내셔널리즘 담론과 극우적 재해석

노란 조끼 운동은 조직과 강령이 부재한 채 탈이념적으로 폭발했기 때문에, 국민연합(RN) 같은 극우 정치세력이 이를 자신의 담론에 끌어들이기 용이했다. RN과 마린 르펜은 초기에 이 운동에 신중히 거리를 두다가 곧 “노란 조끼는 EU의 과도한 규제와 무분별한 이민 정책이 초래한 프랑스인 생존 위기”라고 해석하며 적극적으로 지지선언을 내놓았다 (Perrineau 2019). RN의 선거 포스터에는 “On est chez nous!”(우리는 우리 집에 있다)라는 구호가 반복되었는데, 이는 노란 조끼 운동에서 표출된 공간적·정체성 불안을 정교하게 포착해 극우적 내셔널리즘으로 재구성하는 방식이었다.

〈그림 1〉 RN 선거 유세 현장: “On est chez nous!” (우리는 우리 집에 있다)



출처: Francinfo(2017); La Voix du Nord(2017)

해당 구호는 직역하면 단순히 ‘우리는 우리 땅(집)에 있다’는 선언에 그치지만, 프랑스 극우 정치에서 이 문장은 훨씬 더 복합적이고 전략적인 함의를 지닌다. RN은 이미 1980년대부터 이 구호를 반복적으로 사용해 왔으며, 이를 통해 단순한 경제·치안 불안을 넘어 프랑스인이 ‘더 이상 프랑스에서 주인으로 살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존재론적 위기의식을 자극했다(Franceinfo 2017). 특히 이 구호는 국가영토, 복지, 고용, 법질서를 한꺼번에 묶어 “우리(프랑스인) 대 그들(외부인, 이민자, EU 관료)”이라는 이분법적 구도를 강화하는 대표적 내셔널리즘 슬로건이다. RN은 이민 문제를 단순히 치안 혹은 재정 부담의 차원이 아닌, 프랑스인의 정체성과 생활영역 전체를 위협하는 문제로 과장하기 위해 “On est chez nous!”를 전략적으로 활용해왔다. 이로써 노란 조끼 운동에서 나타난 생활세계 기반의 경제적 불만을 이민·다문화·글로벌리즘에 의한 ‘국민의 집’ 침범이라는 내러티브로 쉽게 포섭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 짧은 문장은 사실상 프랑스 국민만이 복지와 일자리, 공공서비스를 향유할 정당성을 갖는다는 정치적 배타성을 내포하며, 동시에 탈이념적 불만을 강력한 내셔널리즘과 반이민 담론으로 연결하는 고리 역할을 해왔다. Perrineau(2019)와 Rosanvallon(2020)이 지적하듯, 이러한 구호는 경제·사회 문제를 ‘외부인에 의한 내부의 위협’이라는 감정적 도식으로 단순화함으로써 갈등을 더욱 적대적으로 재편하는 기능을 한다.

〈그림 1〉의 오른쪽 사진은 프랑스 북부에서 RN 지지자들이 영화 ‘Chez Nous’ 상영관 앞에서 시위를 벌이며 “On est chez nous!”를 반복적으로 외치는 장면이다(La Voix du Nord 2017). 이는 이 구호가 단순히 선거 포스터나 SNS 슬로건을 넘어, 실제 거리 시위와 집단행동에서 반복 수행되며 “프랑스 국민 대 외부자”라는 적대 구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방식으로 작동함을 보여준다. 특히 노란 조끼 운동과 같은 탈이념적 사회경제적 불만이 이런 거리 시위에서 직접적으로 내셔널리즘과 결합될 때, 대표성 위기에서 출발한 분노가 극단주의 담론으로 흡수되는 구조가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르펜은 방송 토론에서 유류세·생활비 부담을 “다국적 자본과 이민자가 프랑스 국민의 일자리와 복지를 잠식했기 때문”이라며 문제를 이민과 글로벌리즘 탓으로 환원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불만을 수용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 원인을 ‘외부인’에게 돌림으로써 적대 구도를 더욱 뚜렷이 하고 극우 동원을 꾀하는 전략이었다. Rosanvallon(2020)은 이를 “대표성 위기에서 발생한 탈이념적 분노를, 정체성 정치와 적대적 내셔널리즘으로 전환하는 정치적 기술”로 설명한다.

〈표 4〉Ifop과 CEVIPOF의 사후 여론조사에 따르면, 2019년 이후 지방·유럽의회 선거에서 RN 지지자 중 상당수가 노란 조끼 시위를 지지하거나 직접 참여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으며, 특히 농촌·소도시, 저학력·자영업·운수업 종사자가 집중되는

양상으로 나타났다(Cautrès & Gougou 2019). 이는 노란 조끼 운동에서 드러난 사회경제적 불만이 RN의 “국가 우선주의” 해법으로 실질적으로 흘러들어간 구체적 경로를 보여준다.

〈표 4〉 노란 조끼 운동 참여자와 RN(극우) 지지층의 사회경제적 중첩

구분	노란 조끼 참여자 비중	RN 지지층 비중 (2019)
농촌·소도시 거주	약 55%	약 60%
고졸 이하 학력	약 62%	약 65%
자영업·소상공·운송·중소기업 종사자	약 38%	약 42%
월소득 1,500유로 이하	약 58%	약 61%
이민자 증가에 ‘우려’ 표명	약 47%	약 78%

출처: Ifop(2019b); CEVIPOF(2025)

또한 샹젤리제와 대도시 시위에서 일정 시기 이후 “프랑스인은 프랑스에서 우선!”(Les Français d’abord!) 같은 구호가 더 자주 등장하고, 이민자·EU를 노골적으로 비난하는 손팻말이 늘어난 점은, 운동 내부 일부가 RN식 내셔널리즘에 의해 실질적으로 재프레임되었음을 시사한다. Mudde와 Kaltwasser(2017, 47)가 말했듯, 포퓰리즘은 “엘리트 대 국민” 구도를 통해 복잡한 사회문제를 단순 적대 구도로 치환하는 경향이 있으며, RN은 이를 노란 조끼 사례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했다.

결국 이런 극우적 재해석은 프랑스 정치의 양극화를 더 고착화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으며, 경제·사회적 문제를 국가 정체성과 주권 문제로 환원해 갈등을 심화시키는 대표적 사례로 남게 되었다.

2. LFI(멜랑송)의 급진좌파 담론과 계급투쟁의 재구성

노란 조끼 운동은 그 성격상 단일한 이념 지향이나 계급 의식으로 조직되지 않았다. 그러나 급진좌파 불복종의 프랑스(LFI)와 장 뤽 멜랑송은 이 운동을 금융자본과 부유층에 맞선 계급투쟁으로 해석하며 자신들의 담론에 끌어들었다. 멜랑송은 여러 언론 인터뷰와 의회 연설에서 노란 조끼 운동을 “신자유주의적 부유층이 사회적 연대를 파괴하고 노동계급의 삶을 위협한 결과”라고 규정하면서, 부유세(ISF) 복원과 금융거래세 신설, 공공서비스 확대 같은 급진적 재분배 정책을 주요 해법으로 제시했다(Perrineau 2019).

이는 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전면에 내세워 사회적 연대와 계급적 결속을 강화하려는 시도였다. 특히 멜랑송은 마크롱 정부가 추진한 부유세 완화를 “슈퍼리치에게 주어진 도둑질 허가증”이라 비판하며, 노란 조끼 운동을 이를 바로잡기 위한 서민·노동계급의 총체적 저항으로 묘사했다. LFI는 SNS와 지역 연설회, 노동조합 일부와의 연대를 통해 이 담론을 조직적으로 확산시켰으며, 대도시뿐 아니라 중소 도시에서도 이를 강하게 부각했다.

그러나 Ifop(2019)과 CEVIPOF(2020)의 조사 결과를 보면, 노란 조끼 참여자들은 부유세 재도입과 같은 급진적 재분배에는 약 75%가 찬성했지만, 동시에 자영업·소상공에 대한 규제 완화 요구에도 약 54%가 찬성했다. 이는 운동 내부가 반드시 급진좌파적 계급정치에 일관되게 포섭되기 어려운 다층적 불만과 이해관계를 내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LFI가 강조한 금융규제나 국가 개입 강화는 일부 자영업자와 중소 상공업 종사자들에게는 오히려 불안 요소로 작용했다. 노란 조끼 운동 내부에서도 “과도한 조세와 규제가 우리를 더 힘들게 한다”는 목소리가 동시에 존재했다는 점에서, LFI의 계급투쟁 서사와 운동 내부 현실은 필연적으로 일정한 간극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표 5〉 노란 조끼 참여자들의 주요 경제정책 요구

주요 요구 사항	지지 비율
부유세(ISF) 재도입	약 75%
최저임금(SMIC) 대폭 인상	약 68%
자영업·소상공 규제 완화	약 54%
공공서비스 축소 반대	약 65%

출처: Ifop(2019a)

Pierre Rosanvallon(2020)은 이러한 현상을 “탈이념적 다층적 불만을 계급 담론으로 단순화하려는 시도는 그 자체로 운동의 복잡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는 LFI가 노란 조끼 운동을 급진적 재분배와 국가개입 강화를 통한 계급적 연대로 재구성하면서, 다양한 요구들이 충돌하거나 배제되는 구조를 낳았음을 시사한다. Mudde와 Kaltwasser(2017) 역시 포퓰리즘은 복잡한 사회경제적 요구를 “엘리트 대 국민”이라는 단순 구도로 치환함으로써 갈등을 과도하게 선명화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한다. LFI도 노란 조끼 운동을 금융자본과 부유층을 적대의 중심으로 삼는 계급 서사로 재편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전략을 일정 부분 공유했다.

결국 LFI의 계급투쟁 담론은 노란 조끼 운동 내부의 상이한 요구를 하나의 적대 구도로

통합함으로써, 다양한 생활경제적 불만을 단선적인 계급 갈등으로 환원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 점은 이후 결론에서 살펴보듯, 프랑스 정치에서 중도적 타협 가능성을 더욱 약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3. 프랑스 정치 갈등 구조의 양극화

노란 조끼 운동은 본래 지방 불평등과 생활비 부담이라는 구체적이고 다층적인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으나, 운동이 대규모로 확산되면서 곧 RN과 LFI 같은 극단주의 정치세력의 담론에 흡수되었다. RN은 연료세·생계비 문제를 프랑스인의 공간과 정체성을 위협하는 EU와 이민 문제로 환원하였고, LFI는 이를 금융자본과 부유층에 맞선 계급투쟁으로 치환했다. Perrineau(2019)는 이를 두고 “동일한 사회적 불안을 양극단이 각자의 서사로 나눠 가지며, 결과적으로 타협의 공간을 축소시키는 전형적인 구조”라고 분석했다(Perrineau 2019, 58).

이 같은 담론 재편은 운동 내부의 복잡성과 상호 모순을 무시한 채, 각 정치세력이 자신에게 유리한 일부 의제만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Ifop(2019) 통계에서 확인되듯, 노란 조끼 참여자들은 부유세 재도입을 강하게 원하면서도 동시에 소상공·자영업 규제 완화도 요구했다. 그러나 RN과 LFI는 이러한 이질적 요구를 조율하기보다는, 각각 국가 정체성과 계급투쟁이라는 단선적 프레임에 맞춰 운동을 해석함으로써 다층적 불만을 선택적으로 배제했다.

이러한 담론적 단순화는 곧 운동 내부에서 적대 구호를 점점 더 과격화시키는 결과로 나타났다. RN 담론이 강해진 이후 샹젤리제 시위 등에서는 “프랑스인을 위한 프랑스(les Français d'abord)” 같은 외국인 혐오 구호가 더 자주 등장했으며, LFI 담론이 강해진 지역 시위에서는 반부유층·반자본 표적화(riches voleurs) 구호가 전면에 등장하게 되었다. 프랑스 사회 전체적으로도 정치 갈등이 농민, 운송업, 저소득 노동자, 중소기업인 사이의 다층적 이해관계를 조율하기보다는, 양극의 담론 구도로 흡수되면서 타협과 조정의 공간이 점점 축소되었다. 실제로 노란 조끼 참여자 다수는 특정 정치세력에 포섭되길 거부했음에도, 언론과 정치권은 극단화 구도를 반복 조명하며 이러한 양극화를 더욱 부추겼다.

프랑스 주요 언론도 이러한 의제 포섭의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르몽드(Le Monde)는 “노란 조끼 운동이 더 이상 물가와 공공서비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투쟁이라기보다, RN과 LFI의 극단적 구호가 경쟁하는 장으로 변질되었다”고 보도했으며(Le Monde 2019), France Culture는 라디오 심층토론에서 “On est chez nous!”나 ‘부유세 복원’ 같은

단선적 구호가 운동 내부의 다양한 목소리를 지워버린다고 지적했다(France Culture 2019).

이 문제는 이후 프랑스 사회에서 주요 공론장이 되었다. 마크롱 정부는 2019년 ‘대토론(Grand Débat National)’을 통해 노란 조끼 운동이 제기한 문제를 지역별로 수천 회의 공개토론에 부쳤다. 그러나 Perrineau(2019)과 Rosanvallon(2020)이 지적했듯, 이 과정에서 극단주의 담론은 여전히 강력히 재생산되었으며 공론장에서의 타협 가능성은 쉽게 복원되지 않았다(Perrineau 2019; Rosanvallon 2020, 91).

〈표 6〉 프랑스 극단주의 양당의 의제 포섭 전략 비교: RN vs. LFI

구분	극우 RN (Rassemblement National)	급진좌파 LFI (La France Insoumise)
접근 방식	질서 회복·범죄화 담론	빈곤·불평등 해소 강조
대표 수사	“프랑스인은 고통받고 있다”	“민중의 외침에 귀 기울이라”
포섭 전략	국가·정체성 강조, 시위 비판적	연대 표명, 제도권 내 수용 시도
정책 연계	반이민·국가통제 강화	공공서비스 확대·사회정의

출처: 저자 작성

노란 조끼 운동의 주요 의제들이 제도정치로 흡수되는 과정에서 극우(RN)와 급진좌파(LFI)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운동을 포섭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서사로 전유하였다. RN은 질서 회복과 정체성의 위협을 강조하며 운동 내 분노를 이민·안보 이슈로 연결했고, LFI는 불평등·사회정의 담론과 결합시켜 제도 내 투쟁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이러한 차이는 단순한 수사나 태도의 차원을 넘어, 각 정치세력이 추구하는 정치적 대표성의 양태 및 국가와 시민 사이의 매개 방식에서 구조적 차이를 보여준다. 아래 표는 두 정치세력이 노란 조끼 운동을 어떻게 다르게 포섭했는지를 요약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노란 조끼 운동에서 표출된 생활세계적이고 다층적인 불만은 RN과 LFI 같은 극단주의 담론에 의해 재구성되면서, 프랑스 정치 갈등 구조를 기존의 조율과 타협의 방식에서 벗어나 내셔널리즘과 급진적 계급주의라는 양극의 적대 구도로 빠르게 재편시켰다. 이는 이후 결론에서 살펴보듯, 대표성 위기 속에서 탈이념적 분노가 어떻게 극단주의 담론으로 수렴되며 공론장을 협소화시켰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비교적 국민연합(RN)의 사례에 비해 급진좌파 불복종의 프랑스(LFI)의 분석 비중이 적은 이유는 단순한 기술적 비대칭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실제로 노란 조끼 운동의 의제 포섭 과정에서 RN은 더 조직적으로, 전략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자신의 담론 구조와 선거 전략에 운동을 결합시켰다. 특히 RN은 이미 농촌·소도시 거주자, 저소득

자영업자, 운송업 종사자 등 노란 조끼 운동 참여층과 상당한 중첩 기반을 가지고 있었고, “On est chez nous”와 같은 정체성 정치 구호를 통해 경제적 불만과 문화적 불안을 하나의 내셔널리즘 담론으로 포섭하는 데 성공했다. 반면 LFI는 계급투쟁 서사를 통해 일관된 재해석을 시도했지만, 노란 조끼 운동 내부의 이질적 계층 구성과 일부 참여자들의 반국가·반규제 정서와 충돌하면서 그 수용력에 일정한 한계를 드러냈다.

이러한 의제 포섭의 비대칭성은 단순한 담론 전략의 차이를 넘어, 프랑스 정치 지형의 구조적 변화를 시사한다. 전통적 좌파 정당과 노조의 약화, 중도 좌파의 붕괴, 정체성·안보 이슈의 우세라는 조건 아래서, 극우의 포퓰리즘은 좌우 구도를 대체할 새로운 정치적 균열 구조로 자리잡고 있다. 결과적으로 정치적 중간 지대는 점점 협소해지고 있으며, 사회경제적 불만이 향후에도 극우적 내러티브를 통해 더 빠르게 흡수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향후 프랑스 정치가 극우의 제도권 진입 및 정권 획득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정치적 타협과 숙의의 공간이 구조적으로 축소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V. 결론

본 논문은 프랑스 노란 조끼 운동을 통해 대표성 위기에서 비롯된 탈이념적 사회경제적 불만이 어떻게 극단주의 정치세력에 의해 전략적으로 재구성되며, 그 결과 정치 갈등 구조가 점점 더 적대적이고 양극화되는 방향으로 재편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노란 조끼 운동은 유류세 철회, 생활비 부담 완화, 공공서비스 접근성 보장 등 구체적인 다양한 생활경제적 요구를 담고 있었으며, 애초에는 전통 정당이나 이념 구도를 초월한 폭넓은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중앙집권적 조직과 단일 강령이 부재한 탈이념적 성격은 오히려 국민연합(RN)과 불복종의 프랑스(LFI) 같은 극단주의 정치세력이 이를 자신들의 내러티브에 선택적으로 흡수하기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했다. 특히 본 논문이 강조한 정치 대표성의 위기는 단순한 제도 기능의 약화가 아니라, 시민 다수가 정치 자체를 신뢰하지 않게 된 구조적 해체 현상이다. 이로 인해 전통적 숙의 메커니즘—정당, 노조, 지역의회—이 갈등을 조정하고 타협을 이끌어내는 기능을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대신 감정과 정체성 중심의 극단적 담론이 빠르게 대체하고 있다. 숙의 민주주의의 위기는 바로 이러한 대표성의 위기에서 비롯되며, 이는 숙의 자체의 부재가 아니라 숙의가 작동할 수 있는 신뢰 기반과 제도 채널의 해체로부터 출발한다.

국민연합(RN)은 이 운동이 제기한 경제·사회적 불만을 국가 주권과 정체성의 문제로 치환하였다. 연료세와 생활비 부담을 유럽연합과 이민이 프랑스인의 자원을 잠식했기 때문으로 해석하면서, “On est chez nous!”(우리는 우리 집에 있다) 같은 구호를 내세워 문제를 정체성 정치의 구도로 재배치했다. 반면 불복종의 프랑스(LFI)는 이를 금융자본과 부유층에 맞선 계급투쟁으로 해석하며, 부유세 재도입과 공공서비스 강화를 전면에 내세웠다. 그러나 Ifop(2019)과 CEVIPOF(2020)의 조사에서 보듯 노란 조끼 참여자들은 부유세 복원과 규제 완화를 동시에 요구하는 등 단일한 계급 담론이나 정체성 담론으로 환원될 수 없는 복잡한 생활세계적 불만을 드러냈다. 그럼에도 RN과 LFI는 이러한 다양한 요구를 각자의 극단적 담론으로 재해석하며, 운동 내부의 모순과 다층성을 지워버리는 방식으로 정치적 포섭을 시도했다.

이 같은 의제 포섭은 프랑스의 정치 갈등 구조를 내셔널리즘과 급진적 계급주의라는 양극단의 적대 구도로 빠르게 재편시켰다. RN과 LFI는 서로 상반된 이념과 정책을 내세우면서도, 공통적으로 복잡한 사회경제적 불만을 “우리 대 그들”이라는 이분법적 구도로 단순화하였다. Mudde & Kaltwasser(2017)가 지적하듯, 이러한 포폴리즘적 전략은 사회문제를 다층적으로 조율할 여지를 축소시키고, 갈등을 극단화함으로써 공론장의 타협과 조정 기능을 구조적으로 약화시킨다. Perrineau(2019) 역시 이를 “동일한 사회적 불안을 양극단이 각자의 서사로 독점함으로써 정치적 타협의 공간을 점차 잠식해 가는 과정”이라 평가했다.

이 문제는 프랑스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오늘날 경제적 불평등, 문화적 불안, 기후위기와 이주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여러 민주주의 국가에서 유사한 메커니즘이 나타나고 있다. 독일의 AfD, 이탈리아 동맹당, 헝가리 피데스 같은 극우 정당들은 이민과 EU 문제를 과도하게 부각시켜 불만을 정체성 정치로 흡수했고, 스페인의 포데모스(Podemos), 그리스 시리자(SYRIZA)는 급진적 재분배와 반긴축 서사를 통해 계급적 갈등으로 재편하였다. 심지어 최근 한국과 일본에서도 대표성 위기에서 비롯된 청년·중소자영업 불안을 정치권과 언론 일부가 단순화된 포폴리즘 담론으로 포섭하려는 조짐이 뚜렷해지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민주주의와 지역 공동체는 이러한 의제 포섭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보다 정교하고 세밀한 중간조직과 숙의 과정을 복원해야 한다. 공론장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조율되는 공간이어야지, 단선적인 적대 구도가 지배하는 전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 노조, 지역회의, 직능단체 등 중간 매개체가 정치 담론에 실질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숙의 민주주의를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상설적 과정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마크롱 정부의 ‘대토론(Grand Débat National)’은 이러한 시도의

하나였으나, Perrineau(2019)와 Rosanvallon(2020)이 지적했듯 근본적 대표성 위기를 치유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했다.

더욱이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신속한 정치 소통은 갈등을 단순화하고, 극단적 담론을 빠르게 확산시켜 타협과 조정, 다층적 이해관계 조율을 점점 더 어렵게 만든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가 분석한 의제 포섭과 정치 갈등 구조의 양극화 메커니즘은 단지 프랑스 정치에 국한된 사례를 넘어, 오늘날 전 세계 민주주의가 공통적으로 직면한 구조적 취약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경고라 할 수 있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다른 국가와 지역에서 어떤 조건에서 유사하거나 다른 양상을 보이는지 비교 분석하고, 장기적으로 민주주의가 이를 어떻게 조율하고 극복할 수 있을지를 더 심층적으로 탐구해야 할 것이다.



- Arzheimer, Kai. 2015. The AfD: Finally a Successful Right-Wing Populist Eurosceptic Party for Germany? *West European Politics* 38(3), 535-556.
- Centre de recherches politiques de Sciences Po (CEVIPOF) – en partenariat avec Ipsos, Le Monde & Fondation Jean-Jaurès. 출처: https://www.sciencespo.fr/cevipof/sites/sciencespo.fr/cevipof/files/rapport_ipsos_enquete_electorale_avril_2019.pdf (검색일: 2025. 07. 10.).
- CEVIPOF. 2020. Enquête électorale française – Élections européennes 2019. Centre de recherches politiques de Sciences Po (CEVIPOF) – en partenariat avec Ipsos, Le Monde & Fondation Jean-Jaurès. 출처: <https://bit.ly/4oHNRz9> (검색일: 2025. 7. 10.).
- Communemag. 2019. Yellow-Vest Diaries, 25 January. Retrieved from 출처: <https://communemag.com/yellow-vest-diaries> (검색일: 2025. 07. 10.).
- France Culture. 2019. Débat : Les gilets jaunes sont-ils récupérés par les extrêmes?, February. Retrieved from 출처: <https://www.radiofrance.fr/franceculture> (검색일: 2025. 07. 10.).
- Franceinfo. 2017. On est chez nous. Derrière le Front Blog, February 19. 출처: <https://blog.franceinfo.fr/derriere-le-front/2017/02/19/on-est-chez-nous.html> (검색일: 2025. 07. 10.).
- Gaxie, Daniel. 1978. *Le cens caché: inégalités culturelles et ségrégation politique*. Paris: Seuil.
- Halikiopoulou, Daphne. 2015. SYRIZA: The Ambiguous Greeks. *Open Democracy*. 출처: <https://www.opendemocracy.net/> (검색일: 2025. 07. 10.).
- Ifop. 2018. Balises d'opinion #50 – Les Français et le mouvement des Gilets jaunes. Ifop Reports, December. 출처: <https://www.ifop.com/wp-content/uploads/2018/12/115209-Rapport-CN-SR-50.pdf> (검색일: 2025. 07. 10.).
- Ifop. 2019a. Balises d'opinion #80 – Les Français et le mouvement des Gilets

- jaunes. Ifop Reports, November. 출처: <https://www.ifop.com/wp-content/uploads/2019/11/116084-Rapport-CN-SR-N80.pdf> (검색일: 2025. 07. 10.).
- Ifop. 2019b. Le regard des Français sur les Gilets jaunes. Ifop Reports, February. 출처: <https://www.ifop.com/wp-content/uploads/2019/02/116229-Rapport.pdf> (검색일: 2025. 07. 10.).
 - La Voix du Nord. 2017. Des militants FN ont manifesté contre le film Chez Nous devant le Cinéville. February 22. 출처: <https://www.lavoixdunord.fr/122314/article/2017-02-22/des-militants-fn-ont-manifeste-contre-le-film-chez-nous-devant-le-cineville> (검색일: 2025. 07. 10.).
 - Le Monde. 2018. Les gilets jaunes : une révolte inédite par son ampleur et ses soutiens. Le Monde. 출처 : <https://www.lemonde.fr/> (검색일: 2025. 07. 10.).
 - Mair, Peter. 2013. Ruling the Void: The Hollowing of Western Democracy. London: Verso.
 - Mariot, Nicolas and Claire Zalc. 2010. Face à la persécution : 991 Juifs dans la guerre. Paris : Odile Jacob.
 - Mudde, Cas and Cristóbal Rovira Kaltwasser. 2017. Populism: A Very Short Introduction. Oxford University Press.
 - Perrineau, Pascal. 2019. Le populisme en France. Paris: Fondation Jean Jaurès.
 - Reungoat, Emmanuel. 2022. Becoming political while avoiding politics: a study of Yellow Vests. International Journal of Political Anthropology, 출처: <https://www.ncbi.nlm.nih.gov/pmc/articles/PMC9553082> (검색일: 2025. 07. 10.).
 - Rodríguez-Teruel, Juan, Astrid Barrio and Oscar Barberà. 2016. Fast and Furious: Podemos' Quest for Power in Multi-level Spain. South European Society and Politics 21(4), 561-585.
 - Rosanvallon, Pierre. 2020. Le siècle du populisme: histoire, théorie, critique. Paris: Seuil.
 - Rouban, Luc. 2019. La démocratie représentative est-elle en crise ? Paris: Presses de Sciences Po.

- Tarrow, Sidney. 1998. Power in Movement: Social Movements and Contentious Politics. 2nd e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he New Yorker. 2018. The Complicated Politics of the Gilets Jaunes Movement, 13 December. 출처: <https://www.newyorker.com/news/news-desk/the-complicated-politics-of-the-gilets-jaunes-movement> (검색일: 2025. 07. 10.).

● 투고일: 2025.07.11. ● 심사일: 2025.07.21. ● 게재확정일: 2025.08.04.

| Abstract |

France's Yellow Vests Movement and Extremist Political Conflict: The Dynamics of Issue Appropriation and Polarization

Kim Hyunjung (Dong-A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how a crisis of political representation and resulting post-ideological socio-economic discontent in France were strategically appropriated by extremist political forces, thereby polarizing the country's conflict structure. The Yellow Vests (Gilets Jaunes) movement initially emerged with concrete and diverse demands, such as repealing fuel taxes, alleviating living costs, and improving access to public services. However, the absence of centralized organization and a unified platform created favorable conditions for extremist actors like the National Rally (RN) and La France Insoumise (LFI) to selectively reinterpret and incorporate the movement into their own discourses. The RN reframed the movement's grievances as issues of national sovereignty and identity, intensifying nationalist sentiments, while the LFI portrayed it as a class struggle against financial elites and affluent groups. As a result, the multifaceted concerns of participants were oversimplified, leading to a realignment of France's political conflicts into polarized antagonisms of nationalism versus radical class politics. This mechanism of issue appropriation extends beyond France, reflecting structural vulnerabilities of contemporary democracies grappling with economic inequality, cultural anxieties, climate crises, and immigration. By empirically investigating the dynamics through which a crisis of representation, post-ideological discontent, and extremist narratives coalesce to reshape political cleavages, this study seeks to contribute

to broader discussions on the fragility of modern democracy and the necessity of reconstructing deliberative and intermediary structures capable of accommodating complex social demands.

〈Key words〉 France, Yellow Vests Movement, Issue Appropriation, Extremism, Polarization, Crisis of Representation, Populism, Post-Ideological Politics